

 <b>인천광역시</b>	<b>보도자료</b>		<b>인천의 꿈*</b> <b>대한민국의 미래</b>
	배포일자	2023년 3월 5일(일) 총 3매	
담당 부서	환경안전과	담당자	• 환경안전팀장 조숙녀 ☎ 440-8581 • 담당자 유소연 ☎ 440-858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주택 (석면)슬레이트 철거하면 가구당 최대 7백만원 지원**  
**- 주택 지붕개량 시 3백만원 추가 지원, 200㎡이하 비주택은 철거비 전액 -**  
**- 주택·비주택 철거 318동 대상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슬레이트 건축자재가 노후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다. 슬레이트가 노후화돼 석면먼지가 공기 중에 퍼지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비주택(창고, 축사 등)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한다. 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의 경우에는 지붕개량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주택 철거 230동, 비주택 철거 88동, 주택 지붕개량 4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 시에는 1동당 최대 7백만 원을 지원하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에는 철거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또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공사를 하면 1동당 최대 3백만 원(우선지원가구 1천만 원)이 지원된다.

또 창고, 축사 등 200㎡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군·구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군·구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고 지붕 개량 공사도 지원한다.

이용수 시 환경안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575동(예산 약 63억 원)의 주택과 비주택의 철거, 지붕개량을 지원했다.

< 관련사진 > 슬레이트 처리 진행 사진 (사진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